

# 전향자의 역사 다시쓰기

## - 최정희의 『인간사』를 중심으로

김복순\*

### 차례

1. 해방 전/후 전향과 반공주의 주체형성의 문제
2. '기분적 사회주의'자·친일분자의 4·19 전유
3. 구복(口腹)의 윤리와 '돌봄의 아버지'
4. 독립변수로서의 젠더 제거, 모성성으로의 전면 후퇴
5. 맺는말

### 국문초록

최정희는 해방 전-후 전향을 모두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전향과 관련한 내용을 소설로 형상화 하여 전향자의 역사다시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남한의 어떤 소설가도 전향의 문제와 전향자의 주체형성 문제를 직접 형상화 하지 않았고, 그것의 의미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남한사회의 복잡성, 주체의 부정성, 생존의 문제 등을 포함한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인데, 『인간사』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 의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었다.

이 소설은 사회주의 운동-친일-반공주체로의 전향으로 이어지는 식민지 지식인의 삶을 통해 전향의 역사적 불가항력성을 설파하고, 더 나아가서는 4·19를 전유하여 반공주의 사회에서의 역사의 주체화를 꾀한 소설이다. 전반부는 운동자들의 후일담 성격의 애정서사에, 후반부는 정치서사에 가까웠다.

\* 명지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이 소설의 문제는 이들 전향자들을 부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친일행위를 ‘무한 포용’과 ‘용서’의 논리인 ‘정 사상’으로 포장하면서 전향의 역사적 불가항력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향자 및 친일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친일을 시대의 죄로, 사회·국가의 죄로 전가하면서 개인은 무죄임을 직접 설교하였다. 더욱이 친일분자를 사회적 갈등 및 사상을 ‘통합’하는 존재, 4·19의 주체로까지 형상화 함으로써 태생적 한계인 ‘부정적 기원’을 없애고 이 땅 역사의 주체로 재정의하려는 의도를 확인시켰다.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4·19의 성과라 볼 수 없으며, 여주인공인 마채희를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만들기 주체는 ‘여성’이 아닌 ‘남성’, ‘구세대’가 아닌 홍이, 금아, 민 등의 ‘신세대’임을 강조하였다. .

이들의 전향은 ‘구복(口腹)’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구복의 윤리’야말로 전향의 불가항력성을 보장해 주는 강력한 무기로 설명되었다. 구복의 윤리가 ‘생활’을 그려내면서 ‘돌봄’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모습을 제시해 준 부분은 눈여겨 볼 만하였다. ‘아버지’를 호명하여 그 의미의 재발견을 이끌어낸 점은 이 소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

여주인공 채희는 아내의 역할도, 어머니의 역할도 모두 거부하는 ‘역할 거부자’(role rejector)로 형상화 되었는데, 이러한 채희의 사상성 부재 및 사랑의 노예화, 여성의 주체성 탈각, 여성성의 모성성으로의 환원은 이전 시기에 보여 주었던 ‘최정희적 경향’을 부정, 수정하는 것이었다. 독립변수로서의 여성젠더가 배제되고 여성성은 모성성으로 축소 환원되었다. 이는 ‘완전한 어른’ 개념의 젠더화와 함께, 전향자의 역사다시쓰기의 젠더, 반공주의의 젠더가 남성젠더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인간사』가 제시하는 반공주의 사회에서의 주체형성 방식이자 성별 배치였다. 연구결과 『인간사』는 4·19의 성과도, 최정희 문학 30년의 결산도 아니었다.

핵심어 : 전향, 반공주의 주체형성, 기본적 사회주의자, 4·19의 전유, 구복의 윤리, 돌봄의 아버지

## 1. 해방 전/후 전향과 반공주의 주체형성의 문제

주지하다시피 전향(轉向)이란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신념을 그것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우리의 경우 전향은 주로 사회주의자가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외에도 전향은 진보적 합리주의 사상(이념)을 포기하는 경우와 가장 넓게는 사상적 변화 일반을 뜻하는 세 가지의 경우로 대변된다.<sup>1)</sup> 1928년 치안유지법으로 일본의 대내적 총동원 체제가 구축된 후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식민지 조선 또한 거대한 회오리 속으로 재편된다. 특히 1934-5년의 신건설사 사건은 카프 해체와 더불어 ‘전향’의 문제를 이 땅에 본격적으로 노출시키게 된다. 치안유지법이 ‘사상’을 국가 및 사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전향은 개인의 사회적 전망 뿐 아니라 욕망이라는 내면의 문제까지를 동반한다. 전향이 ‘반성’과 ‘배신’, ‘반민족적’ 등의 수사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며, 여기서 전향은 문학과 조우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행동하는 인물’을 다루는 소설 장르야말로 전향의 이러한 내면을 기술하는데 적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방 전 전향과 해방 후 전향은 그 의미가 다르다. 해방 전 전향이 주로 카프 회원들을 상대로 한 비공식적 성격이 주를 이루었다면, 해방 후 전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대한민국 수립 전후부터 전쟁 발발까지를 중심으로 남한 내부에서 반공주의 사회 건설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향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서 월남한 경우로서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를 지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소위 ‘월남 모티브’로서의 전향<sup>2)</sup>이다. 후자의 경우 ‘사상’의 문제와는 좀 거리

1) 혼다 슈고, 이경훈 역, 『전향문학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4집, 180~219쪽.

2) 전영택의 『새 봄의 노래』와 이무영의 『산정삼화』를 들 수 있다.

가 있을 수 있으므로<sup>3)</sup> 본고에서는 해방 전-해방 후의 첫 번째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해방 후 전향의 첫 번째 유형은 해방 전 전향과 달리 전향자의 이념적 스펙트럼도 다양해서 사회주의자 외에 중간파, 아나키스트, 민족주의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1930년대와 달리 전향 기간, 자수기간 등의 독려 기간을 설정하여<sup>4)</sup>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sup>5)</sup> 또 전향자들은 국민보도연맹에 일괄 가입 되는 절차를 치르고 있었다.

- 
- 3) ‘사상’보다는 ‘북한 거주’ 사유가 더 근본적이어서 ‘사회주의 사상의 포기’ 또는 ‘협오’가 아닌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하여는 후속 논문에서 검토할 것이다.
- 4) 정부는 1949년 들어 ‘공산계열개전자 포섭주간’, ‘남로당원 자수주간’, ‘좌익자수 주간’, ‘좌익근멸 주간’ 등의 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전향을 유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이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켜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였다. 국민보도연맹은 형식상 전향자들로 구성된 조직이었지만, 실제 구성원들 중에는 좌익사상과 무관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보도연맹의 경성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전개에 대하여는, 김득중 외, 『죽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1950년대 반공 동원 감시의 시대』, 선인, 2007, 제2장 참조, 119-176쪽.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활동을 열심히 해 취업기회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가입하게 된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어떤 단체인지도 모른채 도장 찍으라는 권유를 받고 손도장 하나 잘못 찍어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마을의 신망 있는 인사가 동행해 종용하면서 양식배급과 여행특혜를 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가입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국민보도연맹 가입자수는 1949년 10월에 4만 여명, 1950년 초엔 30만-50만 명에 이르렀다(한지희,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학살』, 『역사비평』 제35호, 1996. 겨울,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부산 경남 지역』, 역사비평사, 2002. 참조). 국민보도연맹은 ‘자수’와 ‘밀고’ 문화를 만들었는데, 시민 사회에 대한 물 썰 틈 없는 옥죄의 시도였다. ‘법적 근거도 없이’ 위로부터의 뿌리 뽑기와 밀로부터의 충성의 동원의 병행이었으며, 자신과 대립하면 무조건 ‘좌익’ ‘빨갱이’로 몰아 고통당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한국반공주의와 보수주의의 기원이 형성되었다.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기원과 원인』, 나남, 1996, 637쪽.
- 5) 예를 들어 염상섭은 친구와의 친분 때문에 잠시 문학가 동맹에 가입한 사실과 『신민일보』에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논조의 글을 썼다가 전향을 강요받았으며, 손소희는 박영준의 보증으로 문학가동맹에 가입했고 전국문학자대회에 참석한 것 외에 뚜렷한 활동을 한 바 없음에도 전향 대상자로 운위되었다(『한국문단인간사』, 손소희전집 12.)고 한다. 백철 역시 임화와의 친분으로 조선문학건설본부에 참여해 『문화전선』 편집을 2회 맡았던 것이 전향자 명단에 오른 이유였다고 한다(『문학적 자서전』, 박영사, 1976, 322쪽). 이들 작가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사회주의 사상이 투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던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 전 전향이 향후 민족 항배에 대한 모종의 이념적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온존하고 있었던 반면, 해방 후 전향은 반공 정부수립 후 감시-동원 시스템의 본격적 가동과 맥을 같이 하여 진행된, 단힌 가능성의 영역이었다. 또 해방 전 전향이 '전시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계급·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가주의 논리'에 대한 환상<sup>6)</sup>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면, 해방 후 전향은 여러 층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헤게모니의 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해방 후 전향은 단순히 공산주의 사상의 포기로 이해해서는 그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겉으로 내건 의미와 달리 좌/우익의 대칭성 또한 상당히 희석되어 있었다.<sup>7)</sup> 즉 해방후 전향은 문학인 내에서도 그 진성성을 의심받을 정도로,<sup>8)</sup> 사상성보다 신분보장, 생계, 취업 등의 기타의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전향의 문제는 기존 연구와 달리 배반, 반민족적 행위 또는 개인의 변절 등의 단일한 접근법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사회주의자의 전향도 코민테른과의 관계, 중국 공산당, 일본 사상계의 움직임 등 국제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주의 이념도 한국 근현대 사상사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그 속에는 전통과 근대,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의 문제, 일국주의와 국제주의의 문제 등이 내포되어 있다. 해방 후 남북한 사회에 미친 영향관계도 섬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전향의 문제 또한 국제관계라는 큰 틀에서

- 
- 6) 종래에는 사회주의자들의 전향과 협력이 주로 일제의 탄압과 회유에 의한 사상의 포기로 설명되어 왔다면, 강제력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시대적 환상 속에서 자발적(능동적 협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대동민우회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정성필, 『대동민우회의 결성과정과 전향논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 7) 해방 후 전향과 관련하여서는 김재용, 『냉전적 반공주의와 남한 문학인의 고뇌』, 『역사비평』 37, 1996. ; 이봉범, 『단정수립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64집, 2008, 216~254쪽.
- 8) 조연현, 『해방문단 5년의 회고 5』, 『신천지』 1950.2, 참조

조망해야 하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의 반공주의·냉전 드라이브, 중국의 공산화, 신식민지 구성, 개인적 자유와 삶의 단위의 문제, 탈근대성의 문제 등과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향문학연구도 새롭게 진척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소설과 관련하여 볼 때 해방 전 전향은 립펜 지식인 소설, 후일담 소설이라는 일종의 새로운 문학경향으로 표출된 바 있지만, 해방 후 전향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문학인들은 전향을 표명한 후에도 위장전향의 의심을 받는 가운데 ‘전향문필가 집필금지조치’(1949.11-1950.2), ‘전향문필가 원고심사제’(1950.2), ‘원고사전검열조치’(1950.4) 등의 법적 통제를 받는 등 문학활동에 강력한 구속을 받게 되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냉전-반공-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전향문제는 이 사회에서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자리매김 된다. 따라서 해방 후(특히 1949년 이후)에는 전향을 초점화 한 소설은 거의 없었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소설에서 전향은 선/악 이분법 속에서 ‘당연한 것’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당위’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경우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전향 문제는 남한의 사회구성 문제, 정치적·사회적 주체형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탈근대, 탈식민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깊이 있게 천착되어야 한다.

최정희(1906-1990)는 해방 전-후 전향을 모두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전향과 관련한 내용을 소설로 형상화 하여 전향자의 역사다시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최정희는 카프해체의 직접적 계기가 된 신건설사 사건으로 전주감옥에 투옥되기 전 『정당한 스파이』, 『푸른 지평의 쌍곡』, 『비정도시』 등 사회주의 사상을 내용으로 한 소설을 여러 편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최정희는 그 이념지향성이 별로 투철하지 못해 동반자 작가로 분류되지만, ‘사실’ 관계가 발생하는 과정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정희의 사회주의 사상은 성진여학교 때의 (이동휘-김준성 선생님께서)부터의 영향, 1920년대 후반의 근우회 단천지부 활동, 1930년대 초반의 송계월과의 ‘여인문예가 크립 논쟁’,<sup>9)</sup> 사회주의 연극 운동의 주축인 김유영과의 연극공연, 독서목록<sup>10)</sup> 등에서 확인된다.

최정희가 고향이라고 일컫고 보통학교를 다녔던 함경북도의 성진과 단천, 그중에서도 단천은 ‘계급층에서 탈출한’ 지역이었다.<sup>11)</sup> 단천이 계급의식 뿐 아니라 여성의식 면에서도 남달랐음은 위의 글 곳곳에서 확인된다. 단천의 여성들은 무척 씩씩하였고, 남성의 기생충이라는 명칭에서 벗어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정희의 여성의식 및 계급의식이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음은 성진보신여학교 시절의 담임선생님이었던 김준성의 영향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 두 인물은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과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거론되었다. 김준성은 기독교로부터 출발해 한인사회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주도했고, 상해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sup>12)</sup>를 사숙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sup>13)</sup> 특히 최정희의 첫 남

9) 김복순, 「‘범주 우선성’의 문제와 최정희의 식민지 시기 소설」, 『상허학보』 23집, 2008, 제1장, 253-258쪽 참조.

10) 소녀시절에는 『금녀계』 『부인공론』 『고초』 『부인형』 등을 읽었으며(『나의 소녀시절』, 『동아일보』, 1958.7.2.), 그후 『사적 유물론』 『여공애사』 『로자락전』 콜론타이의 저작 등을 읽었다(『나나의 세토막 기록』, 『신여성』 1931.12, 127쪽).

11) 고향은.....남선지방에서 보는 고린 뉘새 나는 양반 쌍놈이라는 것을 가지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네날엔 상전이 있고 종이 잇섯다고 하나 총명한 자연 속에서 자라는 고향 사람들은 인간은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일즉이 깨달았든 까닭인지 종이라는 명목을 다 업새버려 주었다고 한다. 이리해서 내 고향사람들은 행복스러웠다. 누굴 물론하고 힘써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계급층에서 탈출한 단천이여섯다. 최정희, 「폭풍에 쏠리는 나의 고향」, 『삼천리』 1931.12.

12) 이동휘에 대해서는 반병률, 「이동휘와 한말 민족운동」, 『한국사연구』 87, 1994.; 이 중행, 「이동휘의 기독교 민족운동연구」, 협성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참조.

13) 김준성에 대한 언급은 최정희, 『이야기여성사』 2, 여성신문사, 2000, 277쪽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동휘-김준성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전택부, 「김준성 목사」, 『청년』, 1979.4.1. 참조.

편인 김유영은 사회주의 연극운동을 주도한 인물로서 김재철의 『조선연극사』를 포함한 연극사 및 자전적 소설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김재철은 ‘각지에서 일어나는 프로극’이란 장에서 1931년 가을에 조직된 이동식 소형극장을 소개하면서 연출부에 김유영, 출판부에 최정희 등이 관여하였다<sup>14)</sup>고 기술하였다. 최정희의 프로연극 활동은 자전적 소설 『강물은 또 몇 천리』를 비롯한 여러 소설에도 상세히 드러나 있다.

최정희의 1차 전향은 특히 자신의 처녀작 및 기독교 사회주의의 영향 관계를 언급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1936년에는 자신의 처녀작이 「정당한 스파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여류작가좌담회」, 삼천리, 1936.2.227)는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나의 문학생활자서」를 통해 「홍가」로 적극 수정한다. 신건설사 사건으로 감옥에 투옥되었다 석방된 후 최정희는 ‘삼맥’ 시리즈를 발표하며 다른 지향성을 보인다. 정부 수립 후 「홍가」(1937년)를 데뷔작이라고 거듭 천명하므로, 삼맥 시리즈는 ‘해방 전 전향(1차 전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해방 후에는 「풍류 짚히는 마을」, 「짐레」, 「우물치는 풍경」 등을 통해 지주-소작인 문제와 반미 문제<sup>15)</sup>를 언급하는데 이는 해방 전 전향이 의사전향 또는 위장전향<sup>16)</sup>일 가능성을 알려준다.<sup>17)</sup>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종군작가단 활동을 통해 다시 전향한다. 이는 2차 전향이라 할 수 있다. 2차 전향은 북한출신-프로예술운동

14) 김재철, 『조선연극사』, 동문선, 214~215쪽. 이 책은 청진서적(1933), 학예사(1939), 민학총서(1974)본을 현대화자로 고쳐 다시 간행한 것이다.

15) 김복순, 「정치적 여성 주체의 탄생과 반미소설의 계보」, 『민족문학사연구』 40, 2009, 참조.

16) 김윤식은 해방 후 사회주의적 경향을 다시 표출한 경우 1930년대의 사회주의자의 전향을 ‘위장 전향’이라 분류한다. 김윤식, 「전향론」, 『김윤식선집』 3, 숲, 1996, 2003, 108~130쪽.

17) 사회주의자가 1930년대에 전향을 선언한 후 해방직후 다시 사회주의로 돌아와 열혈 투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소설로 윤세중의 「십오일 후」와 이태준의 「해방전후」 등을 들 수 있다.

전력-친일활동-월북 가족이 있는 이산가족<sup>18)</sup>의 작가가 반공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친일경력 및 박정희 정권과의 유착관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1962년 1월 1일 『조선일보』 1일 기자로서 박정희와 면담을 하였으며,<sup>19)</sup> 이승만 귀국 반대, 공화당 선거 참관기, 수북 지구 예찬 등 정권에 향일성을 보이면서 줄곧 문·언 권력의 핵심에 위치하려 하였다.<sup>20)</sup>

신건설사 사건 이전의 초기 소설들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나름대로 보여 주었다. 해방 직후의 소설들도 전망 제시와 관련하여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지만 빈·부의 대립, 고난한 생활상에 이은 노동자의 분노, 지주·농민의 대립을 보여준다. 특히 정치적 여성주체의 형성과 관련해 본다면 해방직후의 소설은 물론 심지어 친일소설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sup>21)</sup> 또 1950년대에는 소녀의 탄생, 양공주의 문제 등 여성문제를 친착하여 민족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젠더의 문제를 검토하여 제국주의 국가와 다른 한국적 특수성의 양상을 나름대로 보여준 바 있다.<sup>22)</sup>

18) 최정희의 여동생 부부는 월북하였으며, 남동생은 월남하지 않았음이 자전소설인 「탄금의 서」를 비롯한 여러 소설 및 수필에서 확인된다.

19) 이 면담에서 최정희는 박정희에게 민정 이양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조선일보』 1962.1.1. 참조.

20) 1935년 경 출옥 후 최정희는 쉬지 못하고 곧 조선일보 기자로 입사한다. 이러한 경력은 해방 후에도 일정하게 『조선일보』와 연결되는 고리가 되었고, 문·언 권력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또 중군작가단 활동은 경제적 형편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반국민들의 경우 쌀을 구입하지 못해 생존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정희는 배급을 넉넉히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21) 김복순, 「정치적 여성 주체의 탄생과 반미소설의 계보」, 앞의 글, 및 「'범주 우선성'의 문제와 최정희의 식민지 시기 소설」, 앞의 글, 참조.

22) 우에노 치즈코는 『내셔널리즘과 젠더』(이선이 옮김, 박종철 출판사, 1999)에서 '민족'과 '젠더'의 양립 불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식민주의의 자장에 강하게 놓여 있었던 우리는 일본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남한에서 반공주의가 정착해 가는 단계에서 이 땅의 작가들이 전향자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그에 드러난 주체형성 여부 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남한 문학사에서 이러한 주체형성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 형상화 된 사례는 거의 없다. 본격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경우도 거의 없다. 비록 그것이 남한사회의 복잡성, 주체의 부정성, 생존의 문제 등을 포함한 뜨거운 감자라 해도 의미화를 지연시킬 수는 없다. 남한의 문학사는, 그간 역사학계에서 지적한 바, 단독 정부가 친일 세력을 기반으로 하였다<sup>23)</sup>는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그 세력들이 남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고자 도모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1964년에 출간된 『인간사』는 전향의 문제를 초점화 하여, 한국전쟁 이후 남한 사회에서 주체형성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고는 『인간사』를 중심으로 해방 전-후의 전향문제를 비교하면서, 특히 해방 후 전향소설의 성격 및 반공주의 사회의 주체형성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또 이에 근대극복 및 분단극복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찰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 2. ‘기분적 사회주의’자·친일분자의 4·19 전유

1964년 여원사 제정 제1회 한국여류장편소설 당선작이기도 한 이 소설은 흔히 4·19의 성과로 언급되나 과연 그러한지 꼼꼼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은 1960년 8월부터 『사상계』에 연재되기 시작하여 12월에 중단된 후 『신사조』로 바뀌어 1963년 11월부터 1964년 4월에 걸쳐 마

23)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참조.

무리되었다. 연재 중단이 전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sup>24)</sup>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총9부로 되어 있으며, 내용상 전·후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최정희는 『인간사』의 집필 동기에 대해

24) 사상계 연재 중단과 이 소설의 전/후반부의 차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정희는 『사상계』 연재 중단과 관련하여 강력한 항의문을 조선일보에 기고(『연재소설 『인간사』의 중단을 두고』, 조선일보 1961.1.12)하는데, 그 내용은 『사상계』 측의 일방적인 마무리 요구에 대한 작가의 항의 및 그간 원고가 늦어진데 대한 개인적인 변명으로 요약된다. 『사상계』에서 먼저 전작 장편을 청탁해 왔으나 만만치 않은 소재일 뿐 아니라 빈혈로 고생하던 때라 끌어 오다가 연재로 바꾸었다는 것으로 시작하여, 첫 회는 100장, 그 다음 회부터는 평균 150장씩 보내다가 빈혈과 이사문제, 큰 아이의 입원 등이 겹쳐 12월치는 44매밖에 보내지 못했다 한다. 잡지사는 성의가 없다고 꾸짖은 후 61년 2월호를 청탁하면서 완(完)자를 써서 보내달라는 청탁서를 보내왔는데, 최정희는 이에 “이 오만 횡포 앞에 대가리를 뺏뺏이 들어 보이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격분하였다.

잡지사 측의 해명은, 원래 계획은 1959년 12월에 전작 장편으로 신기로 원고료까지 지불되었으나, 원고가 안 되어 수차례 연기하다가 5회로 연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다시 작가가 7회로 연장해 달라고 하였고 1961년 2월로 끝내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였다. 잡지사측은 마지막 원고가 44매인 것에, “퐁트라면 몰라도 월간잡지의 연재소설의 한 회분으로 40매 정도를 실을 수는 없다”면서, 부득이하게 1월호에는 못 싣고 2월호로 마무리하자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당시 최정희는 『사상계』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잡지사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게 된 것은 이 연재물의 내용과 깊음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간사』의 전반부(1부-3부)는 학생운동 주동자였던 주인공 강문오의 사랑놀음이 주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사상계』의 성격(이념)과 맞는다고, 특히 4·19 후의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리 없어 보인다. 따라서 후반부의 정치서사는 잡지사의 “오만 횡포 앞에 대가리를 뺏뺏이 들어 보이겠다”는 각오 아래 추후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원래 5회였고, 연장하여 7회가 되는 전체 구도로 볼 때 4부-9부까지의 해방 후의 내용은 소설 중단 후 대폭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한국전쟁까지 기획되었던 것 같고 전쟁 후부터 4·19까지는 위의 사정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분량 상 더 길고, 그 긴 내용을 단 2회(6회-7회)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3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상계』 12월호에는 3장까지만 실려 있다. 3장까지로는 이야기의 종결성이 부족하다. 나머지 4-5장은 『신사조』로 이월되어 3부가 완결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인간사』가 ‘4·19의 성과’라는 해석은 재고를 요한다.

『인간사』를 쓰려고 한 마음은 1·4 후퇴 당시 대구에 피난 갔을 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북으로부터 내려와 지난날 사랑하던 여자에 대해 물었고, 나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의 동지 한 사람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오직 하나의 적(일제)을 두고 싸우던 그들이 이제 온통 다 부서져서 골육끼리 적이 되고만 뼈아픈 현실 앞에 동맹이 치운 것을 알게 되었다.<sup>25)</sup>

라고 함으로써 분단문제를 형상화 한 것처럼 되어 있다. 신사조사에서 나온 『인간사』의 말문에서도 이는 비슷하게 확인된다.<sup>26)</sup> 하지만 『인간사』는 최정희의 말대로 ‘골육끼리 적이 되고만 뼈아픈 현실’을 보여 주는, 분단문학적 시각을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니다.

이 소설은 일제의 사상통제로 사회주의운동에서 이탈한 후 사랑놀음에 전전하다가 친일파가 된 식민지의 룬펜 지식인들이 해방 후 남한 사회에서 주체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전향의 역사적 필연성과 반공주의 사회에서의 이 땅 역사의 주체화를 꾀하는 소설이다.

전반부는 강문오가 감옥에서 나온 후 오직 마채회를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애정서사로 되어 있으며, 후반부는 해방 후부터 4·19까지를 중심으로 이들 전향자들이 역사 현실 앞에서 어떻게 주체화 되는지를 그

25) 이때 만났다는 사람은 임화이다. 최정희는 「옛뻘 지하련 보오」라는 글에서 문학가동맹 정문 앞에서 임화를 만나 그의 아내이자 자신의 친구인 현옥(지하련)의 안부를 물었는데, 여러 가지 주저로운 생각 때문에 사사로운 것을 묻지 못하는데 대한 서글프고 허전한 마음을 털어 놓은 바 있다(『짧은 날의 증언』, 42~44쪽). 최정희는 이 글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오가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 하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한데 뭉쳐 장벽을 뚫어 보자고 하였다. 이 글이 쓰여진 것은 1961년 4월이며, 4·19 후 남북 문인회담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전 작업을 위한 포석으로 쓰여진 글이라 해석할 여지도 있다.

26) “우리가 지나온 30여 년간의 역사를 써보려고 하였다. ....오직 하나의 적과 맞서던 그 인간들이 일제의 사슬에서 풀리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삼팔선이 가로 놓인 남과 북에, 너는 나의 적이 되고 나는 너의 적이 되어 동포, 한 혈족이 서로 맞서 있으면서 죽고 죽이는 과정을 그려 보려고 했다”

리고 있어 정치서사에 가깝다. 일제시대로부터 해방, 한국전쟁을 거쳐 4·19까지 거의 30년간의 한국사를 다루고 있다.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겪었던 한국사의 측면을 날줄로 하고, 그들의 개인사를 씨줄로 하여 거대한 파노라마를 구성해 놓고 있다. 한편으로는 『녹색의 문』에서 다루었던 소녀의 탄생과 초기작에서 다루었던 혁명과 사랑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향의 역사적 필연성, 완전한 여성-완전한 인간의 개념, 새로운 사회 만들기의 문제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마채균, 허윤, 성철수, 김용석 등은 민족해방을 위해 청년동지회에 가입한다. 청년동지회는 동경에 본부를 둔 좌익운동 단체로서 허윤이 조선 지부 총책이다. “인류평등은 약소민족의 해방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때의 사회주의 운동이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다.

하지만 전반부에서 강문오는 식민지 지식인의 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식민지 비판’이라는 의미망을 전혀 산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오경배를 시작으로 전향을 꺾으며, 사회주의 운동 및 독립국가 건설의 불필요, 일본제국에의 협력을 강조한다.

....조국을 위해 투쟁을 한다 ....안 돼...마른 나무에서 물짜기야....그 투쟁 뒤에 온 게 뭐란 말인가? 우리는 그대로 부자유한 것 뿐이야. 그대루 피압 박민족일 뿐이야. 실오리만한 자유두 얻지 못했다. 한강에 돌던지기나 마 찬가지야....(57-58<sup>27)</sup>)

대세가 기울어졌어. ....우린 이제 일본놈이 돼야만 되게 됐단 말이야. 어떻게 좀더 고민없이 일본놈이 되느냐 하는 것이 숙제야. 우리 민족 전체가 제

27) 판본은 최정희, 『인간사』, 신사조사, 1964본이다. 이후 페이지는 이 판본을 따르기로 한다.

각기 일본사람 되는 연습을 잘하구 못하구에 행 불행이 달린 것 같아.(145)  
 ...(중략)자네만 앓은 게 아니구...나두 앓았던 말이야. 우리 다같이 앓은  
 거야...(중략) 사상적인 열병말이야.....우리는 똑같이 열병적인 사회주월 했  
 단 말이야. 기분적이란 말두 맞겠군...그래 맞아. 우리는 주의와 사상을 열  
 병적으로 앓았던 말이야. ....(중략).....  
 .....기본적 사회주의...그래 기본적이지..... 열병적 사회주의지....(170)

소설이 윤리의 문제를 다루는 장르라면 위와 같은 오경배와 강문오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작가는 오경배와 강문오를 일단 분리한다. 오경배의 변절은 호의호식하려는 본능의, 이른바 ‘사적 질주’의 범주로 위치시킨다. 반면 강문오는 금아와 민 등의 생활비 때문 이라고 처리함으로써 오경배의 사적 질주와는 다르게 위치시킨다. 하지만 이들이 민족과 국가 대신 선택한 ‘새 생활’이란 결국 사회주의의 이념과 사상을 버리고 친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주의 운동 및 독립국가 건설을 ‘기본적 사회주의’, ‘열병적 사회주의’로 폄하하고 ‘독립’의 불필요함까지 드러내면서 ‘협력과 저항’ 중 ‘친일’의 길을 선택한다.

오경배의 친일의 길은 대동민우회 등에서 드러나는 ‘제 3의 길’과도 무관하다. 당시 협력에 가담했던 문학인들 중에는 조선인의 민족문제를 다 민족 대국가라는 블록화 모델 속에서 해소하고자 염원하면서 국가가 자본주의를 통제하면, 반(反)자본주의적이며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사회주의 신봉자 중에는 이러한 환상에 침윤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이들의 내선일체는 단순히 일본과의 ‘동화’가 아닌 ‘대국가의 결성과정’으로 인식되었는데,<sup>28)</sup> 오경배와 강문오는 이러한 부류에도 속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민족과 국가 대신 ‘잘 살고 싶은 본능’과 ‘가족과 단란하게 살고 싶은’ 가족주의를

28) 정성필, 앞의 글, 참조.

선택한다.

이 소설의 문제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데 있다. 친일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사회·민족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들을 두둔한다. 오경배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의 이념과 상관없이 인간적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온갖 보살핌을 마다 않는 의리있는 인물로 그리고 있으며, 강문오는 4·19의 주체로까지 부상시킨다. 오경배는 강문오 마초희 뿐 아니라 병약한 허윤, 일본 감옥으로부터 풀려 난 마채균까지 자신의 옛 동지들을 끝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진다. 그럼으로써 투철한 사회주의자 마채균으로부터 “사상도 주의도, 이 정을 토대로 한 위에 쌓아 올려야 한다”는 상찬을 끌어낸다.

친일행위를 ‘호구지책’으로 변명하면서 ‘정 사상’으로 포장하고, 정을 이념과 사상의 토대로, 가장 기초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위치시킨다. 게다가 투철한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무한 포용’ ‘용서’의 논리를 이끌어냄으로써 전향 및 친일행위를 긍정적으로 ‘의미화’ ‘정당화’ 하였다. 따라서 오경배의 변절도, 강문오의 배반과 채희와의 불륜도 모두 ‘용서’된다. 물론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변절한 것은 아니다. 마채균은 끝까지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해방 후 하용빈과 함께 월북한 후 국군에게 잡혀 처형된다. 그는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홀륭한 빨갱이’라는 평판을 듣는다. 하지만 오경배와 강문오는 6·25가 터지자 적색분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 옛 동지를 배반하는 일까지 하게 된다. 반공정권의 명에 따라 이들은 양민학살 행위까지 서슴치 않게 된다.

구덩이 앞에 들쭉 묶여 앉힌 그들 힘으로 파진 것인지도 몰랐다. 그들은 이제 곧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었다. 뒤로 묶인 팔 때문인지 자세를 바로 가질 수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중략)..... 어느 새 엠 윈이 그 소리와 소리 속을 탕탕 쏘았다. 그들은 소리를 채 못 지

르고 퍽퍽 쓰러졌다. 그들은 깊고 또 긴 구덩이 속으로 마치 흙덩이나 돌덩이 모양으로 떨어져 들어갔다. 떨어져 들어간 그들 위에 곧 흙이 덮였다....(중략)...마지막으로 덮은 맨 위의 흙은 밟아야 했다. 되살아날 것을 우려함이었다. 문오와 오경배도 들어섰다. 사람의 몸뚱이가 발밑에 물끄덩물끄덩 밟히는 것이 감각되어 왔다. 끼룩끼룩 소리가 들려 왔다. 채 죽지 않았다는 소리임에 틀림없었다.(318-319)

이러한 양민학살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경배와 강문오는 마채균 이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으며, 오히려 ‘홍륭한 보살핌’의 대명사로 전환되어 있다. 반면 사회주의 사상을 온전히 유지했던 허윤은 이북으로부터 거물급 국제스파이로 몰려 처형당하고, 하용빈마저 처형당하는 운명을 맞는다. 사회주의자들의 죽음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것, 오경배와 강문오의 전향 또한 역사적 필연임을 설파하고 있다. 친일은 역사적으로 불가항력적이었으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시대적 몫이었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전향자 및 친일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시대의 죄로, 사회·국가의 죄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개인은 무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채만식이 『민족의 죄인』에서 설파하였던 바, 개인의 탓이 아니라 ‘망국민족의 본성’에 원인을 돌리는 ‘민족적 자기 비판론’과 유사하다.<sup>29)</sup> 해방직후 문학계는 국가건설 과제에 직면하여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의 친일파 문제를 처리하면서 광범위하게 자기비판을 행한 바 있는데, 오경배의 친일행위를 무한 포용의 논리로 용서하며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하는 이 소설은 『민족의 죄인』보다도 문제적이다.

오경배의 반민족 행위를 ‘정 사상’으로 포장하는 부분은 반공주의가 자신의 이념을 ‘휴머니즘’으로 구성했던 것과 상동적이다. 사실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기보다 ‘특정 정권에 반대하는 그 모든 것에 대

29) 채만식, 『민족의 죄인』, 『백민』, 1948.10, 36쪽.

한 단죄'의 의미가 강하였다. 반공주의의 이러한 포용력은 아무 것도 없이 '텅빈' 기호여서 '그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있는'의 뜻으로서 '무내용성'이라 규정된 바 있다.<sup>30)</sup> 단독정부 수립 후의 반공주의 사회가 친일 세력을 주요 토대로 삼고 있음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오경배를 반공주의 사회의 주체로 만들려는 기도는 전후 반공주의 사회가 왜 휴머니즘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알려 준다.

더욱이 오경배는 허운, 마채균, 하용빈의 위패를 모시는 행위까지 감행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및 사상을 '통합'하는 존재로까지 격상된다. 오경배는 위패 앞에서 서로 몽치자고 서약한다. 여기서 이들은 '빨갱이 잡기'에서 '씩어빠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로 전환한다. 오경배야말로 이 사회를 통합하는, 통합할 수 있는 주체임을 역설하는 것이며, 작가는 친일-전향자에게 그러한 임무를 부여하였다. 더구나 이 소설은 친일분자로 하여금 4·19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4·19를 전유한다. 홍기, 금아, 민, 문수들은 사회개혁에 대한 강한 투쟁의지를 불사르며 시위를 벌이기로 한다. 강문오 또한 그들을 찾아 나서다가 스크럼을 짜며 데모대에 가담하는데, 총상을 입어 죽어가는 문오를 통해 작가는 전향자의 소원이 통일임을 역설한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길 좌우편엔 넝쿨풀들이 짝짝 뻗어 올라가고 있다”고 묘사함으로써 문오의 4·19 정신이 앞으로도 넝쿨처럼 끊임없이 자랄 것임을 암시한다. 이 장면에서, 남한 사회의 주체는 '친일 전향자-반공' 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 만들기 주체의 젠더는 유일한 여주인공 채희를 배제함으로써 '여성'이 아닌 '남성', '구세대'가 아닌 홍기, 금아, 민 등의 '신세대'였다.

30) 조희연,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 읽는 책, 2003.

위에서 검토한 바, 이 소설은 4·19의 성과라 볼 수 없다. 기본적 사회주의자-친일분자들이 자신들의 ‘부정적 기원’을 없애고, 이 땅의 주체임을 재정의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낼 뿐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거의 보여주고 있지 않다. 1980년대 중반까지 4·19의 주체화가 남한 지배 세력의 염원이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남한 사회를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3. 구복(口腹)의 윤리와 ‘돌봄의 아버지’

오경배의 전향이 ‘더 잘 살기 위한 것’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면 강문오의 전향은 ‘구복(口腹)’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구복의 문제란 무엇인가. 1930년대 전향소설이 형상화 한 바, 구복의 문제는 룬펜 인텔리겐차를 포함하여 인텔리겐차들의 가장 허약한, 취약점이었다. 민족운동·사회운동이 사상과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근대 사회에서 이들 이상으로 개인적 삶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구복의 문제임을 1930년대 후반 전향소설은 잘 보여 준다. 즉 1930년대 후반의 전향소설들은 ‘삶의 단위’로서의 ‘민족국가’ 외에 ‘개인’적 영역이 있음을 설파하면서 민족국가로부터 개인적 삶을 분리해 내었다. 1930년대 전반 이전의 소설이 개인적 삶과 민족적 삶의 분리를 보지 못하였다면, 전향소설은 이 둘의 분리 가능성 및 분리된 삶 속에서의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묻고 있다. 국가라는 정치단위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 및 민족주의 이념을 최우선으로, 또는 그 이념을 유지하기 위한 민족적 결속 등을 최우선 과제로 위치 짓지 않는 것이다. 전향소설 또는 전향문학이 하나의 범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전향을 기점으로 문학으로 회귀하여, 즉 다이쇼적 사소설이 문단의 주류가 된 현상으로 읽으

면서, 이를 문학사에서 정치/문학, 외면/내면의 이분법이 발현된 현상으로 분석한 바 있다.<sup>31)</sup>

1930년대 후반 전향소설이 이처럼 정치의 압박 하에 있던 ‘문학의 구출’이라는 주제를 함유하고 있다면, 해방 후 전향은 문학의 구출이라기보다 반공주의 사회에서의 역사다시쓰기와 연관된다. 구복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그 어떤 주의자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소설이 주장하는 바이며, 이념으로 대치된 역사 현실은 그 어느 쪽도 ‘생존’의 문제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신념/배신의 차원을 벗어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단죄의 차원도 뛰어 넘는, 사회적 책임의 차원이라는 것이 이 소설의 취지이다.

개인적 삶이 항시 민족적 삶, 국가적 삶에 결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온갖 국가주의의 횡포를 목격하면 오히려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탈근대론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반민족 행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인 ‘살 권리’가 있으며, 민족/반민족 여부는 그 후에나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쳐 보인다. 이는 당대의 모든 조선 민중이 겪어내야 했던 문제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 단죄의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즉 전향은 역사적으로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이다.

1930년대 후반의 전향소설이 룬펜 지식인의 일상을 형상화하는데 그 치면서 전향의 ‘사유’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sup>32)</sup> 『인간사』는 전향에 대한 변명을 넘어 전향의 정당성 및 역사적 불가항력성까지 언급한다. 이때 ‘구복의 윤리’는 전향의 정당성 및 역사적 불가항력성을 항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소설의 전반부는 강문오의 무력함, 사랑놀이 등을 통해 전향자 지식인의 사생활을 보여 주지만, 여기서의 개인적 국면

31)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옮김, 『근대 일본의 비평』, 소명, 2002.

32) 김윤식은 이를 ‘위장전향이기 때문이라 해석한다. 앞의 글, 참조.

은 1930년대 후반의 전향소설과 달리 ‘일상’이 아니라 ‘사랑놀이’에 불과하다.

후반부에서도 1930년대 전향소설과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내면의 형상화는 후퇴하면서, 전반부에서 보였던 지식인의 패배감 등이 일체 사라진다. ‘패자의 부재’야말로 『인간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패자의 부재는 반성의 부재와 동의어이다. 전향자의 역사다시쓰기에 걸맞게 배신 테마는 괄호 속에 넣고 시대의 몫으로 돌리면서 적극적으로 구복의 문제와 반공주의 사회에서의 살아남기를 감행한다. 앞에서 보았듯 양민학살은 오로지 반공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생존과만 결부되어 ‘목인’하고 ‘감행’해야 하는, 좋든 싫든 해내야 하는 할당량으로 해석된다. 삶의 단위로 서의 민족, 국가 등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개인의 사적 욕망’이 들어서 있다.

그런데 구복의 윤리가 ‘생활’을 그려내면서 ‘돌봄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는 부분은 눈여겨 볼 만하다. 이광수의 시대에 아버지는 ‘부재’이거나 ‘텅빈 기호’였다. 소위 ‘고아의식’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조선의 근대성은 언제 ‘아버지’를 호명함으로써 고아의식을 일소하게 되는가. 해방 전의 경우 그것은 ‘아버지 노릇’이라기보다 ‘가장의 노릇’이었다. 해방 전 전향소설은 ‘아버지’를 호명하는데 실패하였다. ‘아버지 노릇’도 ‘가장의 노릇’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도 저도 불가능한 식민지의 ‘그릇된’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반면 이 소설은 ‘아버지’를 호명하여 그 위치를 일정하게 부여하고 가족 연관에서 ‘아버지 노릇’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강문오는 채희가 버리고 간 자신의 아들 민 뿐 아니라 허운-채희의 딸 금아까지 돌본다. 민과 금아에게 문오는 부성을 확인시키면서 그들을 키워낸다. 오경배의 문화연맹 취직제의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도 아이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였다. 아이들과 함께 야구장

에도 가고 나팔 불기 놀이도 함께 하는 등 ‘아버지 노릇’을 본격적으로 보여 준다. 우리 소설사에서 일상적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놀아 주며’ ‘돌봐 주는’ 아버지를 그린 소설이 있었는데.

이 소설은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변화 및 아버지 역할의 변화를 그려 내면서, 부계 중심의 혈연구조를 벗어난 가족의 다양성도 보여 준다. 강문오는 자신의 아들 민 뿐만 아니라 채희가 허운과의 사이에서 낳은 금아까지 돌봄으로써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변화시킨다. 또 생계부양자라는 가장의 역할은 물론 그간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양육과 돌봄의 역할까지 감당한다. 중세적 아버지가 가문-혈통으로 인식되는 아버지였고, 근대 초기의 아버지가 안/밖의 이분법 속에서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에 그쳤다면, 이 소설은 아이들과 정서적 유대까지 함께 하는, 일상적 차원에서의 돌봄의 아버지를 보여 준다.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자만으로 그려지는 아버지는 안/밖 이분법이 낳은 아버지의 ‘소외’를 드러낸다. 돌봄의 아버지는 이러한 소외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나누고 소통하며 양육에 가담하는 아버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대에서도 ‘아버지다움’이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정은 어머니에 대한 규정보다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버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아버지를 연구하는 역사는 거의 없었다.”<sup>33)</sup> ‘아버지’ 의미의 재발견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 이 소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대치의 지점이다. 전체적으로 가장권의 강화가 목도되고, 가부장적 가족질서가 부계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사회·국가·가족과의 관계망에서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중심주의는 아니다. 강문오의 가족은 모두 4·19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만들기에 나서고 있어 사회(국가)/가족이라

33) 함인희, 『현대 사회 아버지 상의 재발견』, 『가족과 문화』, 2, 1997, 2~3쪽.

는 이분법을 보이지 않는다. 가장권의 강화, 부계중심의 가족질서의 재편은 한국전쟁 이후 당대 사회가(특히 남성젠더의 경우) 남성성 중심의 담론화 기획을 펼쳤던 것과 상동적이다.<sup>34)</sup>

#### 4. 독립변수로서의 젠더 제거, 모성성으로의 전면 후퇴

최정희 소설의 특징이 젠더 우선성 속에서 계급, 민족, 인종 등 범주와의 관련성을 재편해 새로운 내용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면 최정희 문학 30년의 결산인 『인간사』는 그간의 ‘최정희적 경향’을 단 번에 되돌려 놓는다. 최정희적 경향이란 젠더 우선성의 여성주의 서사를 의미한다. 『인간사』의 여주인공 채희는 전반부에서 아내의 역할도, 어머니의 역할도 모두 거부하는 ‘역할 거부자’(role rejector)로서 오로지 사랑밖에 모르는 무책임한 여자로 형상화 되어 있다.

동경 시절 허윤의 아내가 된 것도 허윤이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동경 시절에도 채희는 남성들과 같이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식모 일’에 가까운 일종의 집안 살림을 맡았었다. 운동 조직 내의 성별 분리를 드러내는 한 사례이지만,<sup>35)</sup> 실제로 ‘사상적으로도 백지’여서 청년동지회 일엔 흥미조차 느끼지 않는 여자(107)로 그려져 있다. 어디까지나 운동의 ‘바깥 존재’였을 뿐이다. 채희는 ‘사상이니 주의니 떠드는 사람들은 성산이 없’는 사람이라 일소하면서 처음에는 허윤의 아내로서, 허윤이 병들고

34) 당시 남성젠더와 여성젠더 사이에는 담론화의 차이가 일부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8호, 2007, 참조

35)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학생조직 내에서도 여학생들은 남학생과 달리 빨래, 취사와 같은 살림형태의 일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즉 직접적인 운동전선에 투입되기보다 남자 운동자들을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였고, 남학생들도 여전사, 여투사형보다는 운동을 돕는 조력자들을 더 선호하였다고 한다. 권인숙, 『1980년대 학생운동의 군사화와 성별화』,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55~151쪽.

지도자로서의 아우라가 사라지자 지주의 아들 강문오에게 접근한다. 또 감옥에서는 사회주의자 하용빈의 영웅적 형상에 압도되어 그에게 사식을 넣어주는 등 접근하다가 거절 당하기도 한다. 강문오의 집에서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백화점 레코드부에 다시 취직하여 ‘매일 이백장 씩 레코드를 사주는’ 코가 큰 남자를 따라 아이들까지 버리고 잠적한다. ‘돈’의 이름을 대신한 ‘사랑’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자신도 ‘칼멘의 피가 흐르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이다.

채희의 특징은 불륜에 대한 죄책감이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직 자신의 개인적 삶밖에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여자로 그려져 있다. 채희가 레코드 아저씨를 따라 떠나자 문오는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라고 함으로써 채희를 부정한다. 신경망으로 떠났다가 해방 후 경북의 한 읍으로 돌아온 채희는 알콜중독자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병신 자식 셋을 거느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이 밝혀진다. 소설 중반부에 채희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정치서사로 바뀌는 후반부에서 그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버린 죄는 병든 자식을 셋이나 길러야 하는 ‘어머니의 몫’으로 할당된다. 이는 역할 거부자에게 내리는 일종의 ‘처벌’이다. 소설 후반부에서 채희는 버린 아이들이 ‘여자’를 몰아냈으며, 어머니의 심정으로 산다고 함으로써 여성성을 완전히 탈각하고 오직 모성성으로 남는다. 이런 채희를 문오는 ‘완전한 여성’, ‘완전한 어른’으로 칭송하지만, 채희 자신은 ‘싱거운 찌꺼기만 남은 인간’이라며 부정적으로 말한다. ‘완전한 어른’ 개념의 젠더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젠더화의 주체가 남성이고 여성은 죄인으로서 이러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에서 전후의 젠더정치화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초기 프로 소설로부터 삼백 시리즈를 거쳐 해방 후의 『풍류 잡히는 마을』, 1950년대의 『녹색의 문』 『끝없는 낭만』에 이르기까지 ‘젠더 우선성의 여성주의 서사’를 선보이며 젠더 우선성이 민족, 국가, 사회, 인종 범

주와 어떻게 결합되는지 개성있게 보여 주었다면, 최정희 문학 30년의 결산이라 언급되는 『인간사』에 이르면 여성성은 모성성에 자리를 내주고 후퇴하게 된다.

초기작 『정당한 스파이』, 『푸른 지평의 쌍곡』, 『롬펜의 신경선』 등에서 최정희는 계급 층위에서도 여성의 성적 욕망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계급 투쟁이라는 대의에 개인의 연애를 종속시키거나 말살시키는 관점에서 벗어나 있었다. 즉 계급운동과 여성의 욕망을 연결시켜 ‘해방’의 문제를 천착하려 하였다. 계급해방과 여성해방을 분리시키지 않고 동시에 모색하려 하였고, 여성성을 계급성에 일방적으로 종속시키거나 전유하지 않았다. 그것이 최정희의 소설에서 계급성과 여성성이 결합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1930년대 다른 작가의 경향소설에서 연애가 계급 운동에 전유되었던 것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프로소설의 이분법적 도식성을 극복해 주었다.<sup>36)</sup>

삼백 시리즈 등의 1930년대 후반 소설에서도, 모성성과 여성성의 대립이 극복되면서 애욕의 긍정적 발현으로서의 ‘완전한 여성’이 제시되었다. 완전한 여성에서는 모성성도 여성성도 포기되지 않았으며, 여성성이 더 우선적인 가치로 강조되었다. 심지어 『2월 15일 밤』, 『환의 병사』, 『여명』, 『야국-초』 등의 친일소설에서도 여성성은 식민지(남성)성의 비도덕성에 대한 비판과 계몽 주체로 부상하는 요인이었다. 가부장적 현실, 남성 중심적 현실에 대한 거부, 비판, 복수의 의미를 강하게 노출하여 오히려 식민주의 또는 가부장성에 대한 저항적 의미까지 산출하였다.<sup>37)</sup>

하지만 『인간사』의 채희는 이로부터 현격히 후퇴한 양상을 드러낸다. 채희의 사상성 부재 및 사랑의 노예화, 여성의 주체성 탈각, 여성성의 모

36)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복순, 『범주 우선성의 문제와 최정희의 식민지 시기 소설』, 앞의 글, 참조.

37) 위의 글, 참조.

성성으로의 환원은 이전 시기에 보여 주었던 ‘최정희적 경향’을 부정, 수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독립변수로서의 여성젠더가 배제되고 여성성은 모성성으로 축소 환원되었다. 이는 군사정부 수립 후 1964년 경부터 여성성의 범주가 모성성으로 축소·환원되는 당대의 논리와도 일맥상통한다.<sup>38)</sup>

최정희적 경향의 부정은 또한 전향자의 역사다시쓰기의 젠더, 반공주의의 젠더가 남성젠더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반공주의 사회에서의 주체형성은 ‘남성젠더 중심’이며 여성젠더는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유일한 여주인공인 채희를 배제함으로써 4·19라는 새로운 사회 만들기의 주체는 ‘친일 전향자 남성’ 및 금아 등의 ‘신세대’일 수는 있어도 ‘여성’은 아니라는 것이 『인간사』가 제시하는 반공주의 사회에서의 주체형성 방식이자 성별 배치였다.

식민지 시기부터 중요한 시기마다 ‘전향’이라는 이름의 사상적 변화를 통해 ‘민족’과 ‘젠더’의 관계를 천착해 왔던 최정희는 한국전쟁 이후 남성성 중심의 반공주의 담론화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이르러<sup>39)</sup> 그동안 ‘젠더’ 범주로 지켜왔던 나름대로의 비판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공주의-북한출신·월북(및 북한 잔존)가족이 있는 이산가족이라는 관계망이다. 즉 분단국가라는 ‘민족(국가) 범주’로 인해 ‘젠더’ 범주가 지닌 비판성을 버려야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 젠더 범주를 통해 비판성을 지킴으로써 민족과 젠더의 양립 불가능성을 불식시켜 주는 부분이 있었다면, 『인간사』에 이르러 그 양립 불가능성이 환원되어 나타난 것이다. 분단-반공주의 사회에서 민족과 젠

38)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앞의 글, 참조

39) 이는 1차 연재지인 『사상계』와 2차 연재지인 『신사조』의 담론화의 성별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상계』의 담론화와 성별 배치 연관에 대해서는 김복순, 「낭만적 사랑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 KRF-2008-327-A00441 결과보고서 참조.

더가 양립 불가능함을 이 소설은 역설적으로 확인시켜 주며, 분단-반공주의 사회가 왜 탈식민의 문제와 조우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지시해 준다.

## 5. 맺는말

본 연구는 해방 전/후의 전향이 남한의 사회구성 문제, 정치적·사회적 주체형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탈근대, 탈식민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최정희는 해방 전-후 전향을 모두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전향과 관련한 내용을 소설로 형상화 하여 전향자의 역사다시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남한의 어떤 소설가도 전향의 문제와 전향자의 주체형성 문제를 직접 형상화 하지 않았고, 그것의 의미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남한사회의 복잡성, 주체의 부정성, 생존의 문제 등을 포함한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인데, 최정희의 대표작이자 문학 30년의 결산으로 언급되는 장편 『인간사』는 전향/재전향의 문제를 직접 의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었다.

『인간사』는 사회주의운동에서 이탈하여 룬펜이 된 식민지 지식인이 생존의 문제와 결부하여 친일을 길로 들어서고, 해방 후의 2차 전향과 관련하여서는 당대에서의 전향의 역사적 불가항력성을 설파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4·19를 전유하여 반공주의 사회에서의 주체화를 꾀하는 소설이다. 전반부는 운동자들의 후일담 성격의 애정서사에, 후반부는 정치서사에 가까웠다.

이 소설의 문제는 이들 전향자들을 부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친일행위를 ‘정 사상’으로 포장하고, 정을 이념과 사상의 토대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위치시킨다. ‘정 사상’의 내포는 ‘무한 포용’과 ‘용서’의 논리였다. 이는 전향의 역사적 불가항력성을 강조하면서 전향자 및 친일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친일을 시대의 죄로, 사회·국가의 죄로 전가하면서 개인은 무죄임을 직접적으로 설파하는 것이다. 개인과 국가가 분리되면서 모든 책임은 ‘국가’ ‘사회’에게 전가되고, 소위 대중은 면제되었다. 더욱이 오경배는 사회적 갈등 및 사상을 ‘통합’하는 존재로, 강문오는 4·19의 주체로 부상시켰다. 4·19를 전유함으로써 기분적 사회주의자·친일분자들의 태생적 한계인 ‘부정적 기원’을 없애고 이 땅 역사의 주체로 정의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확인시켰다.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4·19의 성과라 볼 수 없으며, 여주인공인 마채희를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만들기 주체는 ‘여성’이 아닌 ‘남성’, ‘구세대’가 아닌 홍이, 금아, 민 등의 ‘신세대’임을 강조하였다.

오경배의 전향이 ‘더 잘 살기 위한 것’ 즉 사적 질주와 연결되어 있다면 강문오의 전향은 ‘구복(口腹)’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구복의 윤리’야말로 전향의 불가항력성을 보장해 주는 강력한 무기였다. 이 소설은 연재중단의 이유이기도 하였던 전/후반의 문제가 소설적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아울러 확인시켰다. 소설 전반부는 1930년대 전향소설과 달리 개인적 ‘일상’이라기보다 ‘사랑놀이’에 불과하였고, 후반부는 갑자기 이로부터 비약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진입하는 파탄을 드러내었다. 후반부의 서사에서도 내면의 형상화는 후퇴하면서 전반부에서 보였던 지식인의 패배감 등은 일체 사라지는데, ‘패자의 부재’야말로 『인간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다.

구복의 윤리가 ‘생활’을 문제 삼으면서 ‘돌봄’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모습을 제시해 준 부분은 눈여겨 볼 만하였다. 이광수의 시대에 아버지는 ‘부재’이거나 ‘텅빈 기호’였다. ‘아버지 노릇’은 1930년대 전향소설에서도

형상화 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아버지’를 호명하여 그 의미의 재발견을 이끌어낸 점은 이 소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

여주인공 채희에 대해서는 아내의 역할도, 어머니의 역할도 모두 거부하는 ‘역할 거부자’(role rejector)로 형상화 함으로써 그간 ‘최정희적 경향’이라 일컬어졌던 젠더 우선성의 여성주의 서사의 특징을 모두 환원시켜 놓았다. 역할 거부자에게 내리는 강력한 ‘처벌’로서, 여성성을 완전히 탈각하고 오직 모성성으로만 위치시켜 놓았다. 채희의 사상성 부재 및 사랑의 노예화, 여성의 주체성 탈각, 여성성의 모성성으로의 환원은 이전 시기에 보여 주었던 ‘최정희적 경향’을 부정, 수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독립변수로서의 여성젠더가 배제되고 여성성은 모성성으로 축소 환원되었다. 이는 ‘완전한 어른’ 개념의 젠더화와 함께, 전향자의 역사다 시쓰기의 젠더, 반공주의의 젠더가 남성젠더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었다. 4·19라는 새로운 사회 만들기의 주체는 ‘친일 전향자 남성’ 및 금아 등의 ‘신세대’일 수는 있어도 ‘여성’은 아니라는 것이 『인간사』가 제시하는 반공주의 사회에서의 주체형성 방식이자 성별 배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간사』가 4·19의 성과도, 최정희 문학 30년의 결산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식민지 시기부터 중요한 시기마다 ‘전향’이라는 이름의 사상적 변화를 통해 ‘민족’과 ‘젠더’의 관계를 천착해 왔던 최정희는 한국전쟁 이후 남성성 중심의 반공주의 담론화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이르러 그동안의 ‘젠더’ 범주로 지켜왔던 나름대로의 비판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반공주의-북한출신-월북(및 북한 잔존)가족이 있는 이산가족이라는 관계망, 즉 분단국가라는 ‘민족’(국가) 범주로 인해 ‘젠더’ 범주가 지닌 비판성을 버려야 했던 것이다. 분단-반공주의 사회에서 민족과 젠더가 양립 불가능함을 이 소설은 역설적으로 확인시켜 주며, 분단-반공주의 사회가 왜 탈식민의 문제와 조우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지시해 준다.

앞으로 남은 문제가 있다면 다양한 전향의 사유를 분류하여 전향소설의 계보를 그리면서 각 계보와 주체형성 연관, 사회 이념 연관, 젠더 연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월남 모티브 소설의 두 유형을 아울러 검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득중 외, 『죽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1950년대 반공 동원 감시의 시대』, 선인, 2007.
-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 김진기 외, 『반공주의와 한국 문학의 근대적 동학 1』, 한울, 2008.
- 김진기 외, 『반공주의와 한국 문학의 근대적 동학 2』, 한울, 2009.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기원과 원인』, 나남, 1996.
-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옮김, 『근대 일본의 비평』, 소명, 2002.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 b, 2009.
- 베르트 슈퇴버, 최승완 옮김,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역사비평사, 2008.
- 쓰루미 슌스케, 최영호 옮김, 『전향』, 논형, 2005.
- 혼다 슈고, 이경훈 역, 『전향문학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4집,
- 후지타 쇼조, 최종길 옮김, 『전향의 사상사적 연구』, 논형, 2007.

### 2. 논문

- 김복순, 『범주 우선성』의 문제와 최정희의 식민지 시기 소설, 『상허학보』 23집, 2008, 253~294쪽.
- 김복순, 『정치적 여성 주체의 탄생과 반미소설의 계보』, 『민족문학사연구』 40, 2009, 308~341쪽.
- 김윤식, 『전향론』, 『김윤식선집』 3, 숲, 1996, 2003, 108~130쪽.
- 김재용, 『냉전적 반공주의와 남한 문학인의 고뇌』, 『역사비평』 37, 1996, 1~22쪽.
- 박죽심, 『최정희 문학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1~241쪽.
- 정성필, 『대동민우회의 결성과정과 전향논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0, 1~78쪽.
- 함인희, 『현대 사회 아버지 상의 재발견』, 『가족과 문화』, 2, 1997, 1~24쪽.

## Abstract

## A Convert's Rewriting of History

-Focusing on the Choi, Jung-Hee's Ingansa(human history)-

Kim, Bok-soon

The problem of the conversion from a leftist in Sou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is not connected with only the formation of the social-political subject for anti-communism but it is also related to the nature of modernity and post-modernity in South Korea. Therefore, we need to research the problem very carefully. Choi, Jung-Hee carried out that kind of conversion twice, one was before the Liberation and the other was after it. She wrote a novel about the conversion problem and tried her rewriting of history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nvert. It was an unusual case in South Korea. Furthermore Ingansa(human matters) is a novel to strive for the formation of subject for the anti-communist in South Korea and for the historical necessity of conversions by pseudo-communists .

The first half of the novel has a characteristic of 'love-narrative' to review in a later time the activities of the communists of 1930's, and the second half has a characteristic of 'political narrative'. The novel shows us some distinctive facts in South Korea. The first fact is that the social-political subject of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was formed by pro-Japanese and anti-communist group. The second one is that the main group to build a new society in South Korea was masculine in gender, and the group was not an old generation but a new generation.

The heroin, Chae-Hee's being absent from ideology, being enslaved to love, getting rid of female's self-identity, and retrogressing from femininity to motherhood, these things mean the deviation from Choi, Jung-Hee's original

orientation. The gender in the convert's rewriting of history in anti-communist society, was masculine.

**Key Words** : conversion, subject formation of anti-communism, pseudo-communist, appropriation of 4·19, moral of living, caring father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